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3.(금) 배포 시 배포 2026. 11. 13.(금)

충북 진천 종오리 및 경기 파주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충북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 일제검사, 경기도 메추리 농장 일제검사, 전국 대형 산란계 농장(10만 마리 이상 사육) 합동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3일(금), 충북 진천군 소재 종오리(2천 여 마리)와 경기 파주시 소재 메추리(46만 6천 여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진천 H5N1형, 파주 H5N9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금)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충북 진천 종오리 농장은 폐사 증가와 사료섭취 저하로, 경기 파주 메추리 농장은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13일(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참고로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6/'27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26.11.3.~) : 6건(경기 3, 충북 1, 전남광주 1, 인천 1)

11월 3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여러 시군에서 산발적 발생이 확인되고 있고, 야생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와 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월 12일(목) 충북 진천 종오리 농장과 경기 파주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 가금의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한 축종과 동일한 축종, 발생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진천 종오리 관련 : (대상) 충청북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11월 12일(목) 23시 ~ 11월 13일(금) 23시, 24시간

* 파주 메추리 관련 : (대상) 경기도 메추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11월 12일(목) 23시 ~ 11월 13일(금) 23시, 24시간

아울러,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안에 있는 가금농장(진천 40호, 파주 16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오리 계열사의 소속농장(6호)과 충북 내 오리 농장(38호)에 대해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 발생 단계별 검사 강화(1차 발생 : 60% → 2차 : 80% → 3차 : 100% 검사, 14일간)

둘째, 전국 오리 계열사는 방역관리계획서에 따라 계약 사육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셋째, 육용오리 농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출하작업을 하고 출하 후 14일간 입식제한 기간을 운영토록 한다.

* 관할 지방정부에 출하전 신고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감독하에 출하, 상차반입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출하 등

넷째, 경기도 내 전체 메추리 농장(28호)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경기·충남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11월 7일(토) 09시부터 11월 14일(토) 09시까지 7일 동안 백신접종반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산란계 농장 알 환적장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11.5~16)하는 등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지방정부는 GPS 차량관제(KAHIS), 농장 CCTV 확인 등을 통해 농장별 환적장 적정 운영 여부 긴급 점검 추진(11.5~11.16)

여섯째,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국 대형 산란계 농장(235호)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방역본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40개를 편성하여 차량 소독 실태, 방역시설 적정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일곱째,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과 야생조류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방역수칙을 집중 안내한다.

* 전국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시군별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도·홍보

4. 당부사항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발생 양상을 보면 가금농가 발생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와 축산농가는 ‘어느 지역도 예외는 없다’라는 전제로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야생조류에서도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전국 가금농가는 야생조류 오염원이 농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진입로 집중소독, 출입 차량 통제 등 방역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방역인력은 방역복과 전용 장화 등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소독제 살포 등 방역 작업 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된 긴급 방역비(14억 원)도 적재적소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